

## PC有感

“따르릉 따르릉”

“네 전산업무실 김려성입니다.”

“아 김실장이요? 나 박교수인데, 한가지 부탁 좀 합시다. 다름이 아니고 내 둘째 놈이 대학교 2학년생인데 글썄 퍼스널 컴퓨터를 사겠다고 하는구먼”

“그렇군요”

“그런데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아는게 있어야지, 그래서 김실장이 좀 좋은 것으로 추천 좀 해 주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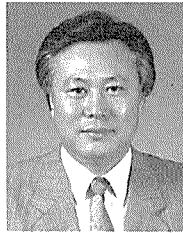
요즘 이렇게 퍼스널 컴퓨터 품명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컴퓨터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필자가 정보처리업계에 근 20여년이나 종사하고 있지만 이렇게 PC이야기만 나오면 그만 주눅이 들고 만다.

PC가 많이 보급되기 전만 하더라도 私席에서 컴퓨터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를 주도하는데 타인의 추종을 불허했는데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지고 말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직속상사는 PC를 배우느라 눈까지 상해가면서 4년이상이나 컴퓨터를 배우고 있다.

그런데 집에서 PC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음날 아침 간부회의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PC를 잘 모르는 이 전 산실장은 답변이 궁할 수 밖에.



金麗脛  
증권감독원 전산업무실장

苦心끝에 생각해 낸 답변은 이렇다.

“비행편대나 항공모함을 지휘, 통솔하는 사령관이 오토바이를 탈출 모른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궁색한 변명도 한두번이지 친지나 선배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는 피할 재간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새삼스럽게 PC 작동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16비트 PC 앞에서 전원을 넣는 순서부터 디스킷을 복사하는 방법등을 배우기 위해서 입사한지 몇년 안되는 햇병아리 프로그래머를 선생님이로 모시게 되었다.

PC의 운영체제(OS)인 MS-DOS도 익히고, 문서편집기인 워드프로세서, 각종 계산과 그래프를 작성하는 스프레드시트, 한글을 쓰기위한 한글 소프트웨어 등등. 이제 해묵은 컴퓨터 전문가도 PC 작동을 외면하고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